

# 재난지원금 들고 마트 대신 편의점行... 유통가 '희비'

대형마트 매출 전년비 15% 감소  
고객 수 줄고 객단가마저도 하락  
코로나19 초기때 보다 타격 커

GS25, 소고기 매출 194% 꺾춤  
대형마트, 대규모 행사로 모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유통업계가 부진을 겪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마트를 찾는 고객 수가 감소한데다 객단가마저 줄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달 13일 이후 주요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1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마트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이마트 주요 품목 매출신장률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19년 5월 15일~6월 2일)대비 한우는 -19%, 과일은 -18%



고객이 GS25에서 카드로 다양한 행사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GS리테일

매출이 하락했다. 또, 채소는 -11%, 통조림은 -7% 매출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전체 12% 매출 감소율을 보였다. 카테고리 별로는 축산이 -10.2%, 수산 -4.5%, 대용식품 -19.4% 매출 하락세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흡플

리스 역시 비슷하게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과 식자재마트, 농협 등으로 고객이 몰리면서 동일 상품군을 취급하는 대형마트가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은 13조4582억원에 달한다. 시중에 풀린

지원금이 소비 진작을 이끌었지만, 대형마트는 오히려 코로나19 초기 때보다 큰 매출 하락폭을 겪고 있다.

◆마트의 묘안...쿠폰 주고, 할인하고!

이마트들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거나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끌기에 나섰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최근 수요가 증가해 몸값이 오른 한우 할인행사를 전개한다. 시중가보다 40~50% 저렴하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마트는 전국 131개 점포의 임대매장(푸드코트 제외)을 이용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하기에 나섰다.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임대매장 영수증을 고객만족 센터에 제시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이마트에서 8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이번 쿠폰 증정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 매장의 매출 활성화를 물론 고객에게는 쿠폰을 통해 저렴하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트대신 편의점에서 산다!

재난지원금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곳도 있다. 바로 편의점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된 5월13일부터 5월30일까지 편의점의 결제 수단별 사용 비중을 분석해 본 결과 카드(신용/체크/선불 포함) 결제 비중이 86.1%까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카드결제 비중으로 전년, 전월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1%p, 9.1%p 증가한 수치다. 카드로 풀린 11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는 고객 수요가 편의점에 몰리면서 카드 결제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BGF리테일에서 운영하는 CU는 축산물 매출이 전월대비 58% 늘었다. 과일·채소 판매도 24% 증가했다. GS25에서도 소고기 매출이 194% 늘며 대형마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겨우 날개 뻗는데... 美 시위 격화에 항공사 '걱정'

대한항공·아시아나 미주 노선 재개  
뉴욕 등 40여개 도시 야간통행 금지  
탑승객 감소, 안전 위협 등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례없는 위기에 놓인 양대 항공사가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적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접었던 미주 노선을 이달부터 재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부터 미주 지역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 등 전 국제선 가운데 일부를 운항 재개했다.

특히 지난달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시카고 등 5개 노선에서 워싱턴, 시애틀, 밴쿠버, 토론토 등을 추가해 현재 9개 노선을 운영 중이다. 이는 각국의 코로나19 완화 이후 여객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도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상황에 대비해, 이달부터 국제선 전체 73개 노선 중 27개를 운항하기 시작했다. 이는 잠정중단했던 13개 노선을 재개하고, 주간 운항횟수를 57회 추가한 것이다.

그 가운데 미주 지역의 경우, 화물 수요 등을 고려해 시애틀 노선을 운항 77

일만에 운항 재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3개 노선만을 운항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전역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어, 이 같은 두 항공사의 날개가 다시 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강압 체포 행위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현재 미 전역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폭력 행위도 함께 벌어지면서 뉴욕과 LA 등 4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재개에 나섰다지만 시위로 인해 수요 감소는 물론 승무원 및 탑승객 등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LA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의 이륙이 12시간 지연됐고, 같은 날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인천으로 돌아오려던 화물기도 9시간 지연해 출발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위로 인해 지상교통편 운영이 안 돼 승객들이 탑승하러 올 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 이후 추가로 지연되거나 그런 적은 없다"며 "아직 노선 운항 중단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연된 사례는 없었고, 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다"며 "탑승객은 미주 노선 전체적으로 절반 좀 안 차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공영쇼핑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추진  
전담 'MLC사업부' 신설

공영쇼핑은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MLC사업부'를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지속됨에 따라 언택트 고객시대와 동영상 콘텐츠 확대 등 오픈마켓형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MLC사업부는 우선적으로 '모바일 라이브 플랫폼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이는 공영쇼핑 애플리케이션 내 모바일 라이브 운영 화면 및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등 플랫폼 인프라 구축이 주요 목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시간과 스튜디오 공간 등의 제약 없이 판매 방송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로형 콘텐츠로 고객에게 더욱 높은 친밀도를 제공할 수 있다.

MLC사업부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소개할 차별화된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 'MPD' 제도를 운영한다. MD(상품기획자)와 PD(방송제작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MPD는 윈스톱 상품 소싱 및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새롭게 시도하는 MPD는 사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이밖에도 모바일 라이브에 참여하는 협력사에 촬영, 쇼호스트, 교육 등을 지원하고, 공익 관련 공공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시청부터 구매까지 윈스톱으로 연결되는 편의성, 판매자와 구매자 간 양방향 소통, 실시간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높은 구매를 기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회복탄력성 키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롯데 ‘HR 포럼’

유튜브로 첫 비대면 진행

롯데는 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월드타워에서 '2020 롯데 HR 포럼'을 진행했다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HR 포럼은 매년 전 계열사 인사·노무·교육 담당자들이 모여 그룹 HR 방향성을 공유하고 인사 관련 이슈를 학습하는 등 롯데 HR 역량발전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점을 고려 유튜브 실시간 강연을 통해 HR 담당자 660여명이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

올해 HR 포럼의 주제는 'Resilience for the new normal (새로운 세상을

위한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난관이나 큰 변화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조직과 개별구성원들의 빠른 회복탄력성 구비를 통해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도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HR의 역할임을 공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롯데는 HR 담당자들이 회복탄력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을 준비했다.

기조강연은 롯데 기업문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목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경준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이 진행했다. 이경목 교수는 '위닝 스피

릿 (Winning Spirit) 강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개인과 조직의 회복탄력성의 증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위닝 스피릿의 조직내 확산을 위해 승리를 가르는 결정적 행동의 실행과 HR의 역할을 제안했다. 김경준 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HR의 지향점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다.

기조강연 이후에는 뉴노멀시대의 인재상, 회복탄력성과 소통능력의 리더십 등의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한 해 효과적 HR 성과 관리를 통해 회사 가치 창출에 기여한 계열사를 포상하는 'HR 어워드'를 진행했다. 롯데는 이를 위해 핵심인재 확보, 리더십 개발, 여성인재



롯데지주 송용덕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롯데지주

육성 등 다양한 지표로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대상은 대흥기획이 수상했으며,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롯데리테일이 우수상을 받았다.

롯데지주 송용덕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주제는 HR"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